

가까이 다가드는 소련 현대문학

다양한 작품세계, 있는 그대로의 소련 이해에 도움

최근 소련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소련 현역작가·시인의 작품집 출간이 늘어나고 있다. 신문학 초창기부터 우리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러시아문학과의 재접목은 이념과 정서 양면에 있어서 새로운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련이란 어떤 나라인가. 최근 올림픽과 일련의 문화행사를 계기로 소련이 갑작스럽게 화제의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소련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소련의 '철의 장막'과 우리의 '반공 장막'이라는 이중의 장막으로 인해 완전히 차단된 양국관계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선 문화교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러시아문학은 신문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작가와 일반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설가 송영씨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한번 빠지지 않은 사람은 작가될 자격이 없다"고 단언한 바와 같이 푸쉬킨에서 고골리,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체홉으로 이어지는 19세기 러시아의 빛나는 이름들은 지금도 불멸의 광휘를 내뿜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성취를 이룬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의 활발한 번역·출판과는 달리 20세기 현대 소련작가·작품의 소개는 아직 일천한 상태이다.

노벨상수상·망명작가에 치우쳐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러시아 작가·작품 가운데 소개된 것은 부닌, 파스테르나크, 솔제니친 등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서방측의 인정을 받은 작가들에 국한되었다. 여기다 작년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망명시인 브로드스키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된 작가·시인들은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반체제 문인들이 대종을 이루어왔다고 하겠다. 똑같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조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솔제니친의 작품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비롯 「암병동」(백양, 정음문화사, 학원)



블라지미르 마야코프스키



알렉세이 톨스토이



미하일 솔로호프



콘스탄틴 페진

「수용소군도」(열린책들) 「붉은 수레바퀴」(열린책들) 「자유여 조국여」(범조사) 등 거의 전작품이 소개된 반면 러시아혁명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솔로호프의 「고요한 둔강」(일월서각, 문학예술사) 「개척되는 처녀지」(일월서각)는 85년에 이르러서야 번역본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보다 선배작가로서 현대소련 문학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막심 고리끼의 대표작 「어머니」(석탑)가 소개된 것 역시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으며, 자전적 삼부작 「어린시절」 「세상 속으로」 「나의 대학」(이론과실천사, 가치)이 출간된 것은 금년 초.

우리나라의 현대소련문학 수용의 한 단면을 명쾌하게 반영해주는 이러한 사실은 '이념의 장벽'과 함께 우리 독서층이 연령에 따라 소련작가에 대한 기호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여기에 대해 러시아 서적 전문출판사인 도서출판 열린책들의 대표 洪池雄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솔제니친을 찾는 독자들은 70년대 그의 추방을 기억하고 있는 40대 이후의 장년층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이십대의 젊은 독자들은 솔제니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더군요. 고리끼의 「어머니」나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가 운동권 대학생의 필독서라는 점은 최근 경향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문학사에서 거론되는 작품은 거의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역작가의 작품을 발굴해서 소개할 단계라고 봅니다.”

최근에야 소개되기 시작한 현역작가 작품

소련의 현역작가로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 스탈린 사후 해빙기에 관료주의의 이면을 대담하게 파헤쳐 커다란 파문을 던진 두진체프의 「빵으로만 살 수 없다」(김학수 옮김, 집문당)와 시

인으로 더 잘 알려진 예프투셴코의 「시베리아의 들딸기」(이종진 옮김, 동아일보사), 2차대전 말기 시베리아를 무대로 펼쳐지는 젊은 부부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인 라스뿌젠의 「살아아, 그리고 기억하라」(이종진 옮김, 지학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 열린책들의 「아르바트의 아이들」(리바코프, 홍지웅 옮김)과 「종말전 10억년」(스뜨루가츠끼, 석영중 옮김). 「아르바트의 아이들」은 1930년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운명, 개인과 제도의 긴장을 그린 작품으로 '인간' 스탈린의 진면목이 처음으로 형상화된 소설이라 해서 소련 독서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 「종말전 10억년」은 매우 이색적인 SF소설. 소련은 회색빛 사회주의리얼리즘 소설밖에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이 작품은 부수고 있다.

이와는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한국인 2세로서 소련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나톨리 김의 단편집 「사할린의 방랑자들」(최건영·손명곤 옮김, 소나무)과 「푸른 섬」(김근식·최건영 옮김, 정음사)이 나와 있다. 동양적 신비주의를 러시아문학에 도입한 그의 작품은 사할린동포들의 수난을 주로 다루고 있다. 소나무에서는 아나톨리 김의 대표장편 「다람쥐」를 곧 출간할 예정.

예프투셴코·마야코프스키 詩集 준비중

소련 현역작가 작품의 부진한 출판은 詩에 이르면 그 정도가 훨씬 심한 편. 원래 러시아 문학이 시보다는 대하소설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는 표면상의 이유도 있겠으나 파스테르나크가 시인으로서보다는 「의사 지바고」의 작가로서만 알려진 것은 우리 문학의 편향적 성취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하겠다. 지식산업사의 「러시아시집」(이종

진 옮김)과 열음사의 「태양의 흑점이 흐려진다」(안나 아흐마토프) 「자작나무 숲에서」(예세닌), 그리고 10대 소녀의 감작한 시집 「하늘 절반 푸른 별」(니카 투르비나, 청하)을 겨우 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펜대회때 저항시인으로 유명한 예프투셴코가 다녀가면서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당시 예프투셴코의 시낭송회를 주선한 바 있는 중앙일보사는 본인과 한 글번역관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 번역작업 중이다. 예프투셴코 자신이 선정한 작품을 250페이지 남짓한 분량에 실으려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예프투셴코의 육성낭송 테이프를 부록으로 한다는 점. 중앙일보사 출판기획부 안길모부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 있을 한·소 문화교류의 시금석이자 가능성의 모색”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열린책들에서는 「소련현대시인선」이라 하여 마야코프스키, 만켈리쉬담, 보즈네센스키, 쵸베타예바 등 10명의 대표적 소련현대시인의 작품을 시리즈로 출판할 예정으로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문학의 본격적 소개는 이제 그 출발선에 있다고 하겠다. 19세기 러시아문학이 그 뿌리를 깊게 내린 것과 달리 20세기 소련문학은 독자층도 넓고, 연구와 소개도 아직은 미흡한 편. 특히 대학의 노문학 연구가 아직도 19세기에 국한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심지어 러시아형식주의나 바흐젠의 문학이론마저 노문학자가 아닌 영·불문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는 형편. 그리고 솔로호프의 소설을 비롯 지금까지 번역된 작품의 상당수도 일어중역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소 관계의 점진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금 소련현대문학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접근과 연구,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남진우 기자